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제564호

지면안내 02 보도 트랙 구조조정 과정, 문제는 없었나 / 03 사회 힘 있는 학생 목소리, 대학평의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을까 / 05 문화 당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다면? / 06 기획 책꽂이 사이로 보이는

## 소통 부족했던 트랙 구조조정

올해부터 이민·다문화트랙, 시스템경영공학트랙, 생산물류시스템트랙, 컨설팅트랙의 주·야간을 합쳐, 총 8개 트랙이 구조조정 된다. 해당 8개 트랙은 지난 2017년 제정된 「트랙 신설, 변경, 통합, 폐지에 관한 시행세칙」 제 5조, 트랙 신설, 통합 후 처음으로 해당 트랙을 선택한 신입생 수가 2년 연속 주간 15명, 야간 10명 미만이면 해당 트랙을 폐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폐지 및 통합이 결정됐다.

이민·다문화트랙은 트랙폐지가 결정됐으며, 이후 12학점 교육과정인 Micro Degree(단기교육과정)로 운영된다. 소속 교원은 신청에 따라 다른 트랙으로 이동된다. 시스템경영공학트랙과 생산물류

트랙은 '산업공학트랙'으로 통합되며, 기존 트랙은 폐지된다. 컨설팅트랙은 폐지가 결정됐으며, 추후 타 트랙이 폐지될 경우 해당 폐지 트랙과 컨설팅트랙을 통합해 새로운 트랙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트랙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는 지난해 초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를 통해 신입생 수에 따른 트랙 구조조정 관련 심의가 이뤄졌다. 구조조정 예비 대상으로 선정된 트랙은 교직원, 교수, 조교에게 통보됐다.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는 트랙 구조조정 예비대상이 선정됨에 따라 해당 트랙의 의견서가 경영기획팀을 통해 제출 의뢰 및 접수됐다.

2월 7일,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트랙 구조조정(폐지) 2차 심의에서는 관련 규정 해석 및 대상 트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8월까지 교육혁신원을 통해 트랙 구조조정 예비대상 트랙에 대해 트랙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컨설팅이 진행됐다.

12월,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가 구조조정 대상 트랙의 이의제기와 구조조정 대상 트랙 확정을 심의했다. 그 결과, 12월 24일에 구조조정 대상 트랙을 최종 확정하고 통보했다.

지난 1월 20일과 21일에는 구조조정 확정 트랙의 구조조정안이 심의됐으며, 1월 22일 트랙 구조조정에 대해 총장이 승인했다.

약 1년간의 트랙 구조조정 과정은 주로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기획위원회는 기획처장, 각부 학장, 대학원 교학부장, 단과대학별 임명직 교수 1명으로 구성되며, 교무위원회는 각부 처장, 각부 학장, 학술정보관장, 정보전산원장, 대학원장, 교육혁신원장, 디자인아트교육원장, 임명직 교수 2명으로 이뤄진다. 위원회의 심의 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학생은 심의 내용에 대해 열람

할 수 없었다.

학생은 1월 25일 이뤄진 구조조정 최종 결과 통보 이후야 트랙 구조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의견을 요청한 폐지 대상 트랙 소속 학생은 "최소한 트랙이 폐지되기 1년 전이라도 학생들에게 관련 세칙과 트랙선택 상황에 대해 공지했다면 분노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택(컴공 4) 총학생회장 역시 "대학본부가 학생대표에게조차 트랙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1월 27일과 2월 4일에는 총학생회와 폐지 대상 트랙 학생회의 요청으로 각 트랙장과 대학본부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대학 본부는 재학생에게 졸업할 때까지 피해가 없도록 트랙 전공 수업을 개설할 것을 약속했으며, 20학번의 경우 트랙을 재선택해야 한다고 사후조치를 밝혔다.

학생대표 간담회 이후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트랙 구조조정 진행 사항 관련 학생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노광현 기획처장, 최천근 학생처장, 조윤철(학사운영팀) 팀장, 각 트랙 학생회장, 총학생회장, 피해학생 등이 참가했다. 이날 노 처장이 트랙 구조조정 경과에 대해 설명한 후, 최 처장이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대표 및 피해학생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통이 부족했다는 학생의 의견에 최 처장은 "대학본부가 폐지 대상 트랙을 미리 밝혔을 경우, 오히려 해당 트랙을 선택하는 신입생을 줄이는 결과를 조정할 수 있었다"며 "학생 외 트랙 구성원에게는 꾸준히 공지했다"고 전했다.

노 처장은 "앞으로는 트랙이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학생이 트랙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2면

김선우 기자 rtdjrlf@naver.com



▲지난 24일, 정시 캠퍼스 탐방에 참여한 신입생이 상상관 1층 상상홀에서 학생자치단체 소개를 듣고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생 50명이 참여했으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수칙에 따라 하루 3번 나눠 진행됐다. >> 2면에 계속

박현규 기자 pizzadragonheart@hotmail.com

- 2021.1.22**  
트랙 구조조정에 대해 총장이 승인
- 2021.1.27**  
제 1차 학생대표 간담회(총학생회 및 각 트랙 대표)
- 2021.1.29**  
폐지 트랙 재학생에게 구조조정 결과 공지, 폐지 트랙 선택 학생에게 트랙 재선택 권유
- 2021.2.1 ~ 3**  
폐지 트랙 선택 학생의 트랙 재선택 실시
- 2020.2.4**  
제 2차 학생대표 간담회(총학생회 및 각 트랙 대표)
- 2021.2.8**  
제 1차 트랙 구조조정 진행 사항 관련 학생 간담회(학생대표)
- 2021.2.9 ~ 10**  
제 2, 3차 트랙 구조조정 진행 사항 관련 학생 간담회(학생대표 및 재학생)

## 한성대신문

###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hansungnews.com

**인스타그램**  
@hansungnews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에브리타임**  
게시판 >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hansungpresscenter

# 트랙 구조조정 과정, 문제는 없었나

### 학생 “학교가 학생의 트랙 선택 자유권 보장해야”

### 학교 “폐지 트랙 재학생 한 명이라도 있으면 수업 개설 가능해”

#### 구조조정 시기와 기준 개선 필요해

트랙 구조조정은 올해 1월 29일에 공지됐다. 학생의 트랙선택이 시작된 2020년 11월 2일 이후 약 3달 늦게 공지한 것이다. 학생은 트랙선택이 다 끝난 후에야 구조조정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진(스마트 4) 스마트경영공학부 학생회장은 “폐지된 트랙을 선택한 20학번 학생은 트랙을 변경해야 돼 곤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지가 늦었다는 반응에 대해 노광현 기획처장은 “갑작스레 트랙에 대한 선택이 제한된 20학번 학생에게는 미안하다”며 “다만 사회 수요에 따라 트랙이 구조조정되며, 일부 트랙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뿐 아니라 21학번 학생에게도 트랙 구조조정은 영향을 미친다. 본교는 2학년 때부터 전공을 고르는 특수한 학사운영 방식을 갖고 있다. 신입생은 단과대학 단위로 학교를 선택하지만, 세부 트랙을 보고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많다.

폐지가 진행된 시기는 1월 말로, 21학번이 대학 등록을 마친 이후다. 만약 이전에 폐지 대상이 된 트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입생이 있었다면, 자신이 원하던 트랙이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노 처장은 “본교가 입시 과정에서 트랙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과대학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신입생 수만을 토대로 트랙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처장은 “추후 트랙의 취업률이나 교수의 연구 성과와 같은 종합적인 지표를 통해 트랙을 폐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효은(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교는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문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트랙의 폐지를 고려할 때, 신입생의 수뿐만 아니라 취업률과 해당 트랙 재학생의 의견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폐지 막는 방안에 관심 기울여야

폐지 대상이 된 트랙 중 이민·다문화트랙에 대해서는 폐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예술학부에 속해있는 해당 트랙을 사회과학부 소속으로 바꾸었을 경우 폐지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민·다문화트랙은 기존의 예술학부가 아닌 사회과학부로의 학부 편제이동을 요청했다. 작년 2월에서 8월까지 진행된 트랙 컨설팅에서 외부 전문가도 트랙의 성격에 고려해 이민·다문화트랙이 사회과학부로의 학부 편제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기를 치우고 들어오는 같은 학부 내 트랙과 달리 이민·다문화트랙은 입학 실기 시험이 없다. 교육과정 역시 이민정책학과 이민법제론 등의 사회과학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민·다문화트랙 폐지에 대해 오정은(예술학부) 교수는 “학교 측이 규정에 따라 트랙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은 납득하나 컨설팅 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사회과학부로의 학부 편제이동이 이뤄졌다면 트랙의 폐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민·다문화트랙을 제1트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폐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이민·다문화트랙은 기존 학교에서 생긴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제2트랙으로만 선택이 가능했다. 제2트랙으로만 선택된다는 점이 폐널티로 작용해 다른 트랙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과사무실의 경우 해당 트랙이 나온 기존 학교의 사무실을 해당 트랙의 사무실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민·다문화트랙에는 과사무실이 없었다. 학생회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의견을 요청한 이민·다문화트랙 재학생은 “재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트랙장 선출이 겨우 이뤄졌는데 갑작스레 트랙이 폐지돼서 당황스럽다”며 “학생회의 부재가 신입생이 적었던 것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9일과 10일에 진행된 '트랙 구조조정 진행 사항 관련 학생 간담회'에서 피해학생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급한 불은 꺾지만 불씨는 남아있어

지난 1월 29일 본교는 8개 트랙의 구조조정 소식과 더불어 폐지 트랙을 선택한 학생에게 트랙을 다시 선택하라고 공지했다. 해당 학생은 2월 1일 오전 11시부터 3일 오후 1시까지 트랙을 다시 선택했다.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 폐지 트랙을 선택한 20학번 학생은 트랙 선택의 자유권 훼손과 폐지 트랙 수업 개설 여부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한성대신문사가 학생의 불만에 대한 본부의 답변을 들었다.

#### 트랙 선택 자유권 보장해야

폐지 트랙을 선택한 재학생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트랙 선택 이후 2달 만에 트랙을 다시 선택했다. 폐지되는 이민·다문화트랙과 컨설팅트랙을 선택한 학생뿐만 아니라, 통합이 진행되는 시스템경영공학 트랙과 생산물류트랙을 선택한 학생도 트랙 선택에서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해 노광현 기획처장은 “폐지되는 트랙의 수업을 들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수가 적어지면서, 학사운영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며, 트랙 재선택을 권유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폐지 트랙을 선택한 학생이 구조조정 이후에도 해당 트랙을 선택하고 싶은 경우, 학사운영팀에서 트랙의 교육과정과 학생의 이수 계획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해당 트랙 선택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사후조치를 밝혔다.

피해 학생은 트랙제의 취지인 트랙 선택의 자유권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폐지 트랙을 선택했던 A학생은 “다른 학생과 달리 폐지 대상 트랙의 선택을 원할 경우 개인면담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신이 원하는 트랙을 자유롭게 들 수 있는 트랙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트랙이나 학과가 폐지되더라도 재선택 없이 해당 트랙 및 학과의 전공수업을 개설하는 학교도 있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명지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학과가 폐지되더라도 학생이 학과를 다시 선택하지 않는다. 신승호(명지대학교 인문학사 지원팀) 팀원은 “학과 선택 이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사이에 학과 폐지가 진행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2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 폐지된 트랙도 전공 과목 신청 가능해

트랙 구조조정에 대해 폐지 트랙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관련 수업의 개설 여부였다. 학생은 해당 트랙의 전공과목이 균류학이나 일반휴학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 처장은 “폐지되는 트랙이라도 선택한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관련 수업을 개설하겠다는 것이 현재 대학본부의 방침”이라며 “트랙 전공 수업이 개설되지 않아 당황할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업이 있어도 학생 수가 부족할 경우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수업 중 팀 프로젝트나 조별 과제 같은 활동을 할 때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처장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트랙의 학생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전공 학점을 인정해주거나, Micro Degree(단기 교육과정)와 연계하여 관심 있는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부는 폐지 트랙으로 트랙변경을 하기 위해 해당 트랙 소속 전공과목을 먼저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2023년 8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한해서 2021년 6월, 12월에 실시하는 트랙변경기간을 통해 트랙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랙 폐지로 인해 타 트랙으로 이동한 20학번 학생의 트랙기초과목 이수에 대해서는, 학사운영팀이 학생이 이수한 트랙기초과목에 대해 분석한 뒤,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과목 인정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광현 기획처장

김선우 기자 rtdjrlf@naver.com

## 20학번 대상 지도교수 신청 재실시

오는 3월 넷째 주 진로상담센터가 20학번 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지도교수를 신청 받는다. 단, 날짜는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지도교수제는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두어 학업이나 진로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에 학생이 원하는 교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학생은 트랙과 상관없이 1명의 희망 교수를 1~3지명까지 선택할 수 있다. 교수 1명당 상담하는 학년별 학생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된다. 단, 학생은 트랙과의 협의를 통해 인원이 초과된 교수를 선택할 수 있다.

지도교수 신청이 다시 진행된 것은 지난 11월 신청에서 일부 교수에게 선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신청에서는 학생이 총 2명의 지도교수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교수별 제한인원 규정이 없었다. 본교는 이번 신청에서

제한인원 규정을 신설했다.

학생은 3월 셋째 주부터 한성 e-포드폴리오(HOPE)에 제공되는 교수 프로필을 통해 교수의 관심분야 및 주요 연구를 미리 살핀 후 지도교수를 선택할 수 있다. 윤지원(학생상담센터) 연구교수는 “20학번의 시행 경과를 살핀 후 다른 학년에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학번 학생은 진로상담센터를 통해 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은 학생이 4학기 이상을 수료한 상태일 때 가능하며, 교수 1명당 상담 학생 수와 학생의 신청, 사전승인을 고려해 변경이 허용된다. 교수가 안식년일 경우 해당 교수의 선택에 따라 유지되거나, 타 교수 혹은 진로상담센터 상담사에게 위임된다. 학생이 휴학할 경우 지도교수는 유지된다.

박현규 기자

pizzadragonheart@hotmail.com

## 2021년 정시 신입생 대상 캠퍼스 탐방 진행돼

지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정시 신입생 대상으로 캠퍼스 탐방이 진행됐다. 캠퍼스 탐방은 신입생이 학교에 방문해 학교 시설을 체험하고 소개받는 행사다. 2월 22일과 23일에는 상상력인재학부 신입생이 캠퍼스 탐방에 참여했다. 2월 24일에는 상상력인재학부와 나머지 단과대학 신입생이 캠퍼스 탐방에 참여했다. 수시 신입생 캠퍼스 탐방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됐다. 캠퍼스 탐방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일별 참여 인원을 60명으로 제한했다. 프로그램은 하루 3회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각 회차 마다 신입생 20명이 참여했다.

캠퍼스 탐방 프로그램은 학생자치단체 소개, 기숙사 시설물 투어, 캠퍼스 시설 안내, 학내단체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자치단체 소개는 상상관 1층에 위치한 상상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가 소개됐으며, 이후 상상부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기숙사 시설물 투어에는 상상빌리지가 소개됐다. 신입생은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인 생활관에 직접 들어가 보며, 시설을 체험했다. 이어 상상빌리지의 주요 편의 시설인 체육관, 휴게실, 컨퍼런스룸, 세탁실, 편의점, 열람실 등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받았다.

이후 신입생은 상상파크 플러스, 상상파크, 학술정보관을 방문했다. 상상파크 플러스와 상상파크에서는 AI 실습실과 회의실 등을 탐방하고 기자재 사용법과 대여 사업에 대해 설명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술정보관의 멀티미디어 자료실과 상상커먼즈, 창의열람실과 집중

열람실 등에 방문해 각 층에 위치한 자료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

마지막 행사는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됐다. 학생에게 학내단체인 방송국, ROTC, 하랑 등을 소개 및 홍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신입생에게 상상부기 인형 및 경품이 지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태연(상상력 1) 신입생은 “학교가 깨끗하고 시설이 좋았다”며 “빨리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진행한 이경택(공공 4) 총학생회장은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학교에 오기 힘든 환경임에도 많은 분들이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현규 기자

pizzadragonheart@hotmail.com

# 힘 있는 학생 목소리, 대학평의회에서 들을 수 있을까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학생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든 대학에는 평의회라는 의결기관이 있다. 교수와 직원, 조교, 학생 등 학내 구성단위의 대표가 참여해, 대학 발전 계획, 학칙의 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대학의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는 기관임과 동시에, 학생이 학교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평의회에서 학생이 지닌 영향력을 높이고, 평의회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등록금 결정 과정 내 학생 권한 강화 ▲평의회 학생 참여 확대 의무화 ▲국립대 총장추천방식 결정 시 학생 참여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대표발의자인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대전제에도 불구하고 학생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평의회 내 학생 참여 비율 높아져

학생사회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평의회에서 학생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학생 평의원의 수를 전체의 1/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임의구성이 가능했던 동문 정수를 1/6 이내로 제한했다. 법안이 바뀌면 현재 14.7%인 학생 평의원의 비율이 최소 25% 이상으로 늘어나며, 기타(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 평의원의 참여 비율을 낮추고 재학생 평의원 수를 보장할 수 있다.

현재 평의회에서는 학생 평의원의 참여 비율이 현저히 낮아, 대학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학생이 배제된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대학 대학평의회 구성현황’ 자료에 의하면, 교원 37.1%, 직원 21.8%, 기타 24.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학생은 불과 14.7%로 교원, 직원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학생 평의원의 수가 늘어난다면, 학부생, 대학원생, 유학생 등 다양한 학생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이혜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킹) 집행위원장은 “학생은 1~2명만 참여하기 때문에 평의회 내에 영향력이 부족하다”며 “참여하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면 학생의 원활한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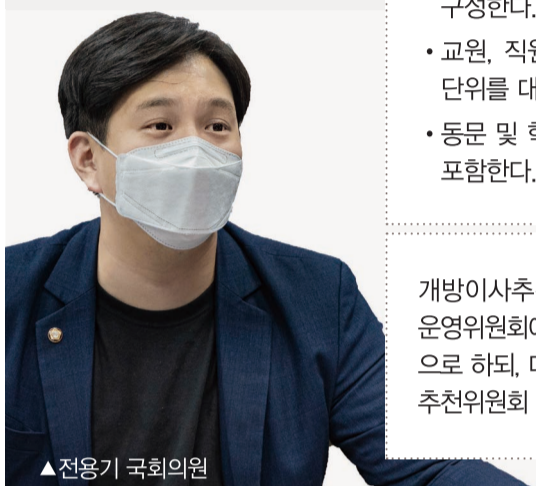
## 각 단위당 5명 이상 참여 가능해져

평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먼저 바뀌는 부분은 평의회의 구성원 수이다. 쉽게 말해 평의회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평의회는 최소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평의회의 구성 요건을 최소 25명 이상으로 조정한다.

전체 평의원의 수를 늘리면, 다양한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하다.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회에서는 각 구성단위마다 평의원이 약 2명이다. 25명으로 늘어난다면 현재 구성단위로 단순 계산을 해도 각 단위마다 5명 이상이 평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평의회 의장은 “현재 평의회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관심이 부족하고, 평의회 관련 활동이나 업무 지원 직원도 형식적으로 배치된다”며, “구성원 숫자를 늘린다면 평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그는 “평의원 중 일부가 불참하더라도 회의는 진행된다. 전체 구성원이 증가하면, 해당 구성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b>자문사항</b> 으로 한다.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b>심의사항</b> 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평의회는 <b>11명 이상</b>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li> <li>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li> <li>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평의회는 <b>25명 이상</b>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li> <li><b>학생 평의원의 수를 전체의 1/4 이상으로 규정</b>한다.</li> <li>임의 구성이 가능했던 <b>동문 정수를 1/6 이내로 제한</b>한다.</li> </ul>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하되,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개방이사·감사·교원인사위원·교원징계위원의 추천주체를 개별 추천위원회에서 <b>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로 전환</b> 한다.



▲전용기 국회의원

단위의 대표자가 전부 빠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자문사항, 심의사항으로 변경돼

법안에는 평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평의회 자문사항인 교육과정 운영, 대학현장 제·개정 등을 심의사항으로 변경한다.

어떤 사안이 평의회 자문사항일 경우, 대학 및 총장의 재량으로 의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대학 및 총장은 평의회의 자문결과에 대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반면 심의사항으로 변경된다면 대학 및 총장이 평의회의 의결결과에 따라야 한다. 연덕원(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사회에 최종 권한이 있어도 절차상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변화를 기대했다.

평의회 기능 강화는 기존 법이 만들어지던 당시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법 설계 당시 평의회는 심의 및 의결기구로 제안됐지만, 현재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있는 평의회는 심의기구로 그 기능이 축소됐다. 현재 평

의회는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는 기능이 거의 없다. 박 의장은 “어떤 사안에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미 대학이 정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꾸기가 어렵다”며, “평의회가 특별한 권한이나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평의회가 심의 및 자문기구이므로 평의회의 권한이 약해 학생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위원 추천 권한, 평의회로 전환

평의회 기능 강화뿐 아니라 새로 추가된 권한도 있다. 법안은 사립학교법 조항 개정을 통해 개방이사, 감사, 교원인사위원, 교원징계위원의 추천주체를 평의회로 전환한다.

일례로 개방이사 추천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법에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평의회와 대학 및 이사회가 나눠 갖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14조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를 평의회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평의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연 연구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평의회에서 추천하더라도, 결국 재단 이사회가 마음대로 개방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바뀐 법안에서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주체를 평의회에 한정하고 평의회에 감사 및 징계 권한이 주어진다. 경영진과 법인 이사회에 대한 평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연 연구원은 “대학 구성원이 재단 비리 등을 폭로하면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새로운 법이 더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평의회가 추천주체가 된다면 평의회에 대한 학내구성원의 관심, 참여도, 위상 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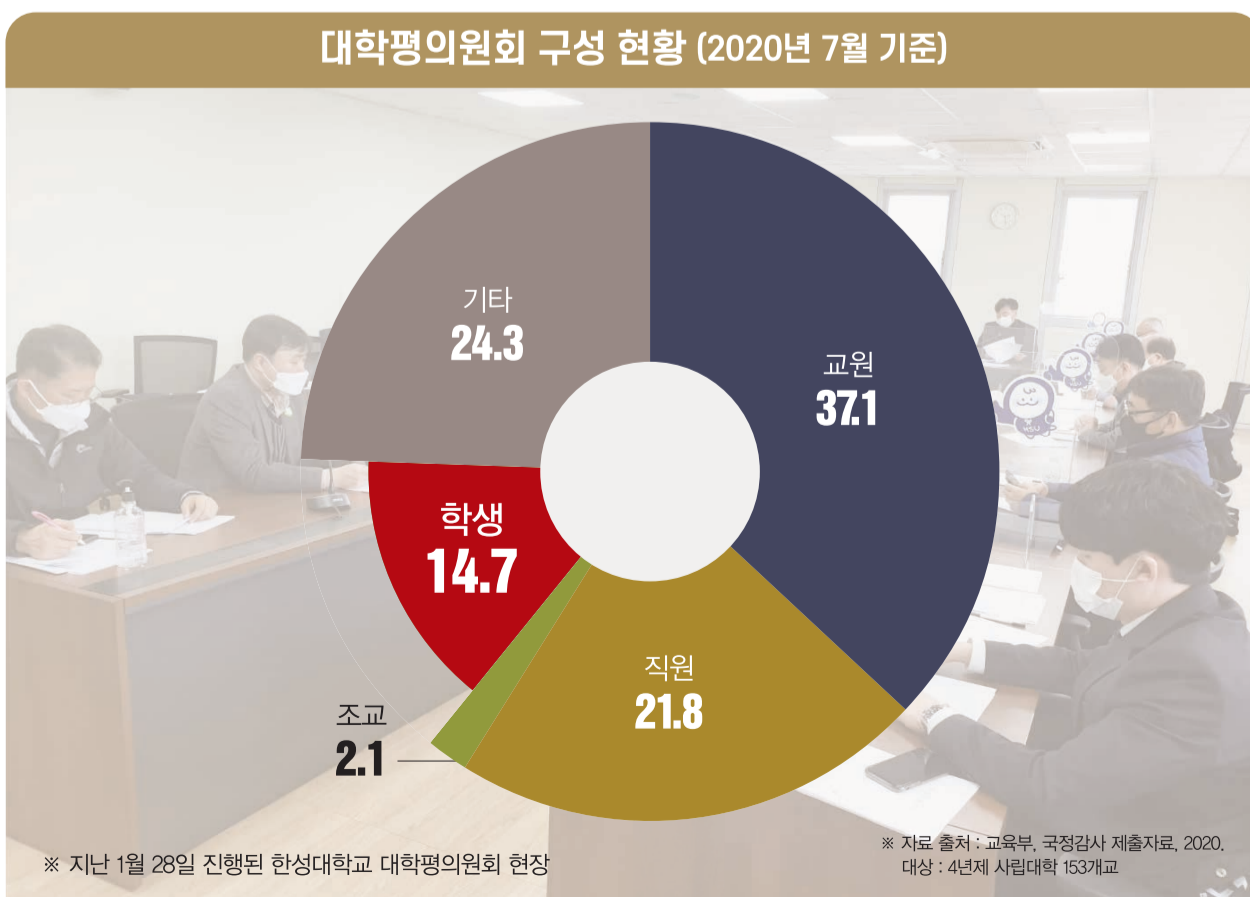
## 학생이 제 목소리를 내려면

평의회에 대해 법적인 변화는 물꼬를 튼 셈이지만, 대학 사회 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학생 대표 선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학생 평의원 수가 늘어난다면, 전체 학생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평의원을 뽑기 위한 새로운 선출 방식을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학생 참여가 보장된다고 해도 참여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의견을 얼마나 전달하느냐에 따라 학생 사회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라며, “직선제 대표자 혹은 평의회 참가 지원을 받아 선출하는 방식 등 다양한 선출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의회에 대한 학생의 관심 재고도 큰 숙제다. 이 위원장은 “일반 학우 사이에서 평의회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용어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학생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원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평의회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제로 공포돼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번 법안은 현재 계류안 단계로,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전 의원은 “대학 내 의사 결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지난 1월 28일 진행된 한성대학교 대학평의회 현장

※ 자료 출처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20. 대상 : 4년제 사립대학 153개교



# Stop The Violence, 휴먼라이브러리

한 남성이 덴마크 시내에서 친구와 길을 걷고 있다.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생긴다. 말다툼을 하다가 행인은 칼을 꺼내 그의 배를 6번 찌른다. 갑작스러운 죽음. 친구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다짐한다. '폭력을 멈추자' 친구의 이름은 로니 애버겔. 사람이 책이 되어 독자와 대화하는 도서관, 휴먼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이다.

애버겔은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2000년 덴마크의 로스킬데 뮤직페스티벌에서 비폭력을 주제로 참가자가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휴먼라이브러리 이벤트를 준비했다. 행사는 4만 명이 참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 후, 애버겔은 휴먼라이브러리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했다. 애버겔의 노력은 마침내 첫 번째 휴먼라이브러리 설립까지 이어졌다.

애버겔의 노력은 우리나라까지 닿았다. 휴먼라이브러리가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은 2010년 국회도서관 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2012년 3월에는 국내 최초의 상설 휴먼라이브러리인 노원휴먼라이브러리가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는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휴먼라이브러리 외에도 희망제작소 등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휴먼라이브러리 서비스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덴마크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 확산됐다. 사람책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한다는 아이디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애버겔이 만들고 싶었던 휴먼라이브러리 속 대화의 모습을 포착해보았다.

## 폭력을 막는 대화

애버겔은 2014년 2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있었던 초청강연에서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서로 차이가 해소되거나 새로운 시각 혹은 통찰을 얻을 수 있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한 계기를 말했다.

휴먼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 휴먼책과 독자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 이미 있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양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서로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서로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다. 갈등과 폭력을 멈추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라는 단순한 생각이다. 그가 진행한 첫 번째 휴먼라이브러리 이벤트 역시 '일단 대화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도서관이라는 형식도 폭력을 없애는 요소로 작용한다. 편견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화의 주제를 서로에게 이로운 것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채택한 것이다. 애버겔은 "사람 사이에 대화 이뤄지는 공간을 중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 성찰의 계기가 되는 대화

휴먼라이브러리는 독자뿐 아니라 휴먼책에게도 뜻깊은 활동이다. 휴먼책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독자와 공유하는 활동은 서로의 정보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사회



▲휴먼책과 열람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람책을 읽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공감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공헌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임미경(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은 "휴먼책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목표를 충족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휴먼책에게 성찰의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 휴먼라이브러리의 상호작용은 독자와 휴먼책 양쪽에 영향을 미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정보습득과 전혀 다르다. 독자가 책을 읽으며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얻어가는 동안, 휴먼책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고 경험을 돌아보게 된다. 임 관장은 "자신의 풍성한 경험이 독자에게 소중한 자료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휴먼책은 자부심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진다"고 휴먼책 활동의 장점을 설명했다.

##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

애버겔이 설립한 최초의 휴먼라이브러리 도서목록에는 이슬람교도, 성전환자, 남자보모, 이민 노동자 등이 등록돼 있다. 흔히 말하는 소수자, 소외계층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내에 들어온 휴먼라이브러리도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경우, 휴먼책으로 새터민, 성소수자, 병역거부자, 노숙자 등 25권이 등록돼 있다. 우리가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소수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만나서 들을 수 있다.

휴먼라이브러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덕현(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휴먼라이브러리는 다양성을 무시하는 세상에 대한 대안"이라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이 휴먼책이 되어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독자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새로운 대화를 낳는 대화

휴먼라이브러리가 만든 소통의 결과물은 휴먼책과 독자 사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독자가 다시 휴먼책으로 참여하면 이해와 공감은 또 다른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대화가 다시 대화를 낳는 셈이다. 장 교수는 "휴먼라이브러리는 일회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자가 얻은 정보가 재해석되고, 그 결과가 다시 다음 독자에게 이어지면 정보의 양은 점점 늘어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도 반영될 수 있다. 특히 대학 등 교육기관은 학문을 다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장 교수는 "대학만이 갖고 있는 학문적 차원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휴먼라이브러리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휴먼라이브러리를 학교에 적용한 사례도 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휴먼책 라이브러리'에는 '교수님도 사로잡는 파워포인트 비법'이라는 주제가 있다. 여기에 휴먼책으로 참여한 재학생은 팀플 및 발표에서 PPT를 만들기 어려워하는 후배를 도와준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선·후배는 발표기술을 함께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사람 사이의 공감부터 새로운 정보의 창출까지. 휴먼라이브러리가 만드는 대화의 가치는 매우 다양하다. 대화로 폭력을 막아보자는 작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휴먼라이브러리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새로 생길 휴먼책과 그들의 이야기가 기대된다.



▲휴먼책 서가에 휴먼책 도서목록이 정리돼 있는 모습이다.



신 기자와 떠나는  
문화여행

요즘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 작품의 온전한 의미는 보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해석은 여러분의 몫이다. 나만의 해석을 찾기 위해, 문화 여행을 떠난다.

우리는 무수한 선택으로 각자의 삶을 만들어간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선택이 소중하다. 앞으로의 삶이 정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정해진 삶으로만 살아야 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첫 여행지는 태어남과 동시에 운명이 결정되는 세상이다.

신혜림 기자 hyerm126@hansung.ac.kr

# 당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다면?

많은 사람이 차례대로 회사에 들어간다. 출입에 시원 증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입구에 있는 게이트에서 채혈을 진행한다. 기계 위에 손가락을 올리면 몇 초 사이에 각자의 신분이 확인된다. 남자도 인파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출근하지만, 그의 손가락에는 가짜 피부가 붙어있다. 남자가 손가락을 올린 기계에서 초록색 불이 켜지고, 통과음이 울린다.

출근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한 남자는 초소형 진공 청소기로 자판 사이를 청소한다. 주위 사람은 남자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깔끔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남자는 청소 후 소매 속에서 작은 병을 꺼낸다. 조심히 뚜껑을 연 남자는 하얀 가루를 자판 사이에 뿌린다. 서랍에서 빗을 꺼낸 남자는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다른 병을 연다. 주위 시선을 살피고 빗에 머리카락을 걸어서 다시 서랍에 넣는다.

피 한 방울, 머리카락 한 올 혹은 피부조직 약간으로도 남자의 정체가 밝혀질 수 있다. 자신의 열등한 유전자 정보를 숨기기 위해, 남자는 매일 같이 몸을 닦고 청소한다.

영화 속 남자가 신분을 위조한 이유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다. 영화 속 세계는 유전자 편집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곳이지만, 남자는 부모의 선택으로 유전자에 어떤 조작도 없이 태어난 인간이다. 그가 갖고 태어난 유전자는 우연의 산물이다. 그의 주변에는 편집된 유전자로 가득하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주변의 유전자를 빌려야만 한다.

능력보다 타고난 조건이 중요한 세상. 유전자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세상. 영화 <가타카>가 보여주는 불평등의 부조리다.

## 태어나자마자 정해지는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평등 사회를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섰지만, 자본으로 인한 격차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다. 문제는 자본에 의한 격차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자본의 계급화를 두고 '수저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서 인간의 계급이 나뉜다는 자조적인 표현의 신조어다.

개인 간의 격차가 선천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간 사회의 부조리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의 현대 사회가 건설되기 전에는 혈통 등이 더 중요한 사회도 있었다. 현대 사회 역시 혈연, 지연 등 부모가 갖고 있던 인맥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아직도 이런 조건이 유효하다는 성토가 나오면서, 블라인드 면접과 인·적성 평가 등 사람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 블라인드 면접이란, 채용과정에서 출신 지역, 학력, 가족관계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정보를 보지 않는 면접을 말한다.

가능한지 아닌지  
운명을 결정하는 건  
자신의 몫이잖아?



<가타카>가 제시하는 사회의 모습은 선천적인 조건을 더 극단적으로 추구한 형태다. 유전자는 출생의 제비뽑기를 통해 타고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다. 심지어 영화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유전자를 삶에 유리한 형태로 편집한다.

고용노동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실력과 인성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력이나 인성은 후천적으로 살면서 쌓아나가는 개념에 가깝다. 블라인드 채용 등 새로 등장한 평가 시스템은 우리의 삶이 선천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됐을 때 개인이 느끼는 박탈감을 사회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 천편일률적인 삶

선천적인 조건으로 만들어진 기준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에 나와 있는 기준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천편일률’이라는 표현을 쓴다. 천 권의 책이 모두 한 가지 맥락으로 이뤄져있다는 뜻이다. 모두가 똑같은 기준으로 편집된다면 천 권의 책도 한 권의 책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삶에서 자유를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 변화할 세계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회가 과연 그런 기대를 줄 수 있을까? 만약 기준에 오류가 있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

영화 속 세상은 삶의 유·불리를 나누는 기준이 유전자 하나뿐이다. 삶의 변수가 적은 걸 넘어서서 하나 밖에 없는 극단적인 사회다. 남자는 다른 이의 신체조직을 모으고 사용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재밌는 것은 영화를 보는 사람이 그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우리는 영화 속 세계에서 도덕이나 윤리보다도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체득하고 있다. 그는 도덕적이지 못한 인물이지만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남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길이 부도덕하고 더러운 길이어도 우리는 그 길을 인정한다.

사실 유전자는 심장질환, 신경계 질병, 우울증, 집중력 장애 등 살아가면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려줄 뿐이다. 어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운명을 정해주지는 않는다.

영화에 등장하는 한 여자는 위장 취업한 남자와 함께 일하고 있다. 여자는 유전자 편집을 통해 태어났지만 심장질환을 가지게 됐다. 여자는 업무적으로 배제되긴 하지만 남자와 다르게 취업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심장질환이 생길 가능성과 심장질환이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서로 교차하는 상황에서 영화 속 사회는 가능성을 악으로, 결과를 선으로 보고 있다. 하나뿐인 기준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아이러니다.

영화 <가타카>는 우리처럼 우연히 태어난 한 남자를 유전자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구성된 사회에 가두면서 이면의 부조리를 보여준다. 어쩌면 영화 속 사회는 우리 사회가 마주할 미래일지도 모른다. 편집된 우수한 유전자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돌진하는 남자의 삶을 따라가 보자.



▲주인공이 사용할 혈액을 뽑고 있는 모습



▲신분을 제공한 남자(아래)와 주인공(위)의 모습



나 말고 다른 사람. 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묻는 것보다 그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종이에 적힌 자료보다 한 번의 경험 이 더 현실적이다. 나를 그로 바꾸기 위해 신문사 밖으로 향한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생생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학교 학술정보관에서 이용자를 위해 힘쓰는 근로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체험해봤다. 도서 수거부터 반납처리, 도서 장비 작업, 책 밀기 작업, 태깅 작업까지.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주히 일한다. 책으로 가득한 도서관 속에서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까? 직접 알아보기 위해 학술정보관으로 향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도서 수거 및 반납 처리

우리학교 학술정보관은 아침 10시에 문을 연다. 근로학생은 10시까지 출근해, 도서 수거와 도서 반납 처리를 진행한다. 수거함에 반납된 도서를 가져오기 위해 에코백을 들고 밖으로 향한다.

현재 우리학교 반납 도서 수거함은 총 4개다. 각각 연구관, 공학관, 탐구관, 학술정보관 앞에 위치하고 있다. 탐구관 수거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잠시 운영을 중지하고 있다.

먼저 연구관 계단을 통해 공학관으로 간다. 공학관 1층 입구에 파란색 도서 수거함이 보인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린 후, 손잡이를 앞으로 당겨 문을 연다. 수거함 속에는 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문을 열쇠로 잠근다.

이번엔 연구관으로 재빨리 걸음을 옮긴다. 다른 업무를 시간 내에 마치려면 수거를 빨리 끝내야 한다. 연구관 1층에 있는 도서 수거함도 개방한다. 수거함이 책으로 가득 찼다. 책은 대부분 두께가 대략 4cm 정도다. 근로학생과 총 11권의 책을 에코백에 나눠 담는다.

식당을 지나 학술정보관 1층에 위치한 도서 수거함에 도착한다. 학술정보관 수거함은 학생들이 책을 반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거함이다. 다 세어 보니 총 34권이다. 근로학생과 나눠 담고 학술정보관으로 들어간다. 수거한 책 무게에 몸이 한쪽으로 기울다.

2층 로비 안내 데스크 책상에 책을 옮기기 위해 있는 힘껏 팔을 위로 들어올린다. 오른쪽 어깨를 왼손으로 주무르면서 대출 반납 컴퓨터 앞으로 간다. 수거한 책의 개수를 종이에 적는다. 총 45권이다. 이것도 코로나19로 많이 줄어든 양이라고 한다.

책을 수거하면 반납 처리를 시작한다. 바코드 리더기로 책 표지에 있는 바코드를 찍고 책 도난 방지를 위해 감응 기계에 책을 올린다. 툭하는 소리가 나면 정상 처리된 것이다. 책이 5권 정도 쌓일 때쯤 옆에 있는 도서 카드에 책을 옮긴다.

도서 장비 작업

새로 맡은 일은 신착도서에 청구기호와 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다. 작업을 거쳐야 책을 서가에 꽂고, 대출 반납도 할 수 있다. 학술정보관에서는 이 작업을 도서 장비 작업이라고 부른다.

2층 북도 맨 끝에 위치한 학술정보팀 사무실로 들어간다. 긴 책상이 놓여 있는 곳으로 향해 자리에 앉는다. 눈 앞에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등이 칠해져 있는 청구기호 및 등록번호 스티커가 보인다. 그 옆엔 투명으로 제작된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프도 있다.

우선, 신착도서가 있는 도서 카드를 책상 옆에 둔다. 책을 꺼내고, 스티커 판에 있는



# 책꽂이 사이로 보이는

▲이용자가 반납한 책을 서가에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로 모양의 청구기호를 떼어 책등 아래쪽에 붙인다. 청구기호 앞자리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히 붙인다. 이번엔 스티커 판에서 등록번호를 떼어 도장이 찍혀있는 책 안쪽에 등록번호 스티커를 부착시킨다. 마지막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투명 테이프를 뜯어 청구기호 스티커 위에 붙인다. 청구기호 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작업을 완료한 신착도서는 옆에 있는 도서 카드에 다시 올려둔다. 대부분 도서 카드에 올려져 있는 순서대로 스티커가 위치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 작업해야 한다. 특히 청구기호의 앞자리가 똑같은 책은 스티커 모양과 색깔이 똑같고, 프린트 된 정보만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붙여야 한다.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실수가 나온다. 잘못 붙인 것들은 책에 손상이 없도록 정교하게 떼서 다시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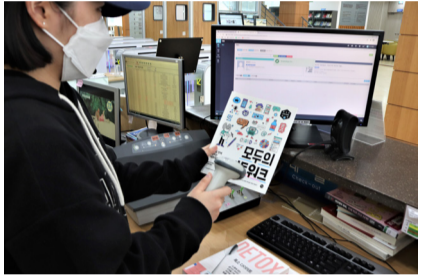
다 붙인 후에는 책 앞면에 있는 등록번호 바코드를 리더기에 태그해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이 끝난다. 총 34권의 도서 장비 작업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흘렀다.

책 밀기 작업

학술정보관에는 수많은 서가가 있지만, 모든 책을 다 열람실에 둘 수는 없다. 신착 도서를 열람실에 넣기 전에 열람실에 있었던 책 중 이용량이 적은 것을 먼저 보존서고로 옮긴다. 방학 때 보존서고로 옮기는 작업을 끝내면서 중간에 몇 칸씩 책이 비어 있다. 현재는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도서 장비 작업이 완료된 책이다.



▲책을 반납 처리하고 있다.

하루에 3번씩 책 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책 미는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 3층 상상 커먼스로 간다. 빈자리는 윗칸부터 채우기 시작한다. 윗칸이 비어있고 아랫칸이 차있으면 책을 위로 옮긴다. 다 채운 뒤에는 책을 앞으로 당겨서 뽑아가기 좋게끔 정리해 둔다. 근로학생들은 작업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당 책꽂이 두 칸 분량으로 작업량을 정해두고 일을 한다.

작업을 진행하다가 책 한권을 놓치고 말았다. 조용한 도서관 때문인지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얼굴이 뜨겁다. 책을 주워 다시 서가에 꽂는다. 작업을 하는 중에도 열람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해야 한다.

태깅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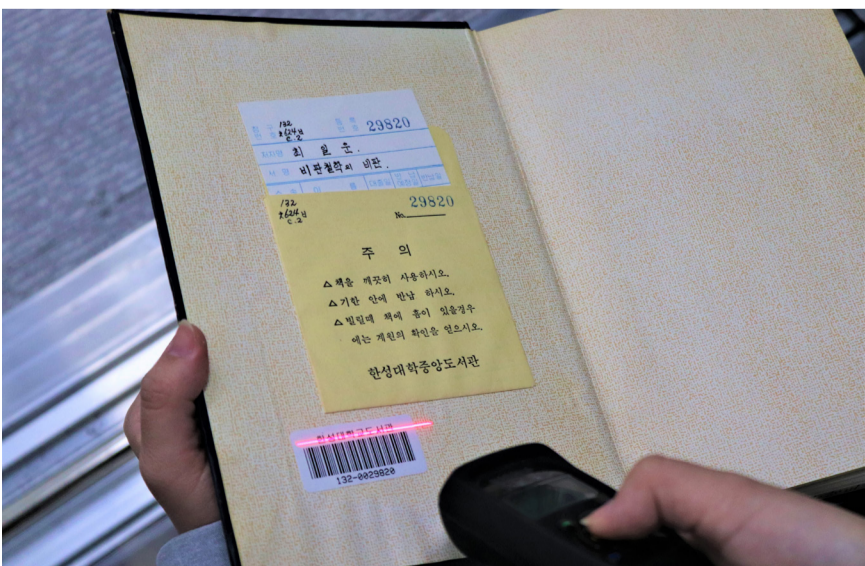
오래된 책은 대출 반납 시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거나 감응 테이프가 기능하지 않아 도난을 당해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책이 없어지는 걸 막으려면, 감응 테이프의 기능을 수시로 확인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감응 테이프를 보수해줘야 한다. 이 작업을 태깅작업이라고 부른다.

학술정보관 5층 인문·자연과학자료실로 향한다. 서가로 향하니 도서 카드에 노트북, 원 모양으로 감겨져 있는 감응 테이프와 바코드 리더기가 보인다. 먼저 업무일지에 날짜, 시간, 근로학생 이름, 시작하는 책의 등록번호를 적는다.

책을 꺼내고 바코드 리더기로 책 표지에 붙어있는 등록번호 바코드를 태그한다. 바코드가 정상 기능하면 컴퓨터 화면에 책의 정보값이 출력되지만, 바코드가 망가진 책은 화면에 오류가 뜬다.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책 뒷면을 펼쳐 감응 테이프를 부착한다. 작업이 끝나면 다시 바코드를 찍어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태깅작업도 각자 책꽂이 두 칸 분량씩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져있다. 다른 근로학생과 돌이서 일을 나눠 네 칸을 끝냈다. 작업한 양을 세어보니 대략 70권의 책을 확인했다. 책을 꺼냈다가 꽂았다가 반복했더니 손목이 빠근하고, 다리가 아프다.

이용하는 사람이 쾌적하게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학술정보관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조용하게 이뤄진다. 작업을 다 마치고 학술정보팀 직원과 대화를 나눈다. “도서관 근무는 사람이 직접 작업해야 하는 일도 많고, 사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도서관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를 듣고 학술정보관을 빠져 나온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조용한 책꽂이 사이를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근로학생이 있다.



▲바코드 리더기에 책을 태그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서관은 사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도서관을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 삼 학 송 ·

## 소나기를 피하는 방법

화창한 하늘이 어느 샌가 어두워지더니 소나기를 뿌리고 있다. 때 아닌 트랙 통폐합에 학생은 당혹스럽다. 우리학교는 트랙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트랙 통폐합이 없었다. 트랙제 도입 당시 대학본부는 “인기 트랙에만 인원이 쏠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부의 입장이 무색하게 트랙 폐지 및 통합이 진행됐다. 트랙 선택 인원이 적다는 이유다. 본교는 ‘트랙 신설, 통합 후 처음으로 해당 트랙을 선택한 신입생 수(제1트랙 및 제2트랙으로 선택한 인원의 합계)가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 연속 주간 15명, 야간 10명 미만이면 해당 트랙을 폐지 함’이라는 트랙 폐지에 관한 세칙에 따라 4개의 트랙을 폐지하거나 통합했다.

폐지 기준은 본교 공식 홈페이지 한성소개 카테고리 내 현황 및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는 접근성이 떨어져 학생이 굳이 찾아보지 않는다. 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사 공지 게시판은 물론이고, 트랙 설명회, OT 등 트랙을 설명하는 어느 곳에서도 폐지 기준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았다.

트랙 폐지 및 통합 논의는 지난 해 1월부터 진행됐다. 2월 5일 본부는 작년 1월부터 트랙 통폐합 논의가 이어졌으며, 매년 1~2월 사이 트랙 선택 결과 및 트랙 폐지 기준 규정을 매년 구성원(교수, 직원, 조교)에게 안내했다고 공지했다. 학교를 구성하는 인원에 학생은 빠져있었다. 학교가 논의를 거친 1년 동안 학생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논의 과정은 본부와 트랙 보직 교수만 참여했으며, 학생은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트랙 통폐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인 학생이다.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을 비롯한 트랙 구성원과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학생에게 해당 트랙과 논의 과정을 알려야 한다. 심의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동덕여자대학교의 경우, 학사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인 학사제도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때 협의체는 학생과 학교 측의 위원이 동등로 들어가는 수평적인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기구를 신설하기 어렵다면 교무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진행하는 심의에 학생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본교는 추후 취업률, 교수 연구성과율 등을 평가지표로 추가할지 논의 중이다. 해당 평가지표는 가장 기본이 되며,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평가지표가 아니다. 학교가 아닌 학생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본교는 트랙 만족도 조사를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각 트랙의 특성을 살린 트랙 만족도 조사를 매 학기 실시해 평가지표로 활용해볼 수 있다. 학생이 트랙을 선택한 이유에는 취업뿐만 아니라 배움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더 나아가 학생이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하는 부분을 공개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트랙 발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부는 해당 트랙을 지원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우려해 폐지 대상 트랙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창한 날씨에 우산 없이 나온 학생은 트랙 통폐합이라는 소나기를 피하지 못했다. 소나기가 오기 전, 미리 우산을 챙길 수 있을 기대한다.

박희연 편집국장



## 부부가 꿈꿨던 이상향

3.1 독립선언서를 세상에 알렸던 언론인 앨버트 테일러. 그는 자신의 아내 메리 린리 테일러와 함께 살기 위해 종로에 빨간 벽돌집을 지었다. 메리는 ‘이상향’이라는 뜻을 지닌 힌디어 ‘딜쿠샤’를 집의 이름으로 정했다. 부부의 이상향과 일제 치하의 한국은 너무 멀었다. 앨버트는 일제의 미국인 추방조치가 있었던 1942년까지 이 집에 살면서, 3.1운동, 제암리 학살사건 등을 취재해 세상에 알렸다. 사진 속 보이는 모습은 메리의 화실이 있던 2층의 전경이다. 부부의 이상향이 앞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정은 기자

## 기자수첩

요즘 배구계가 학교폭력 문제로 시끄럽다. 지난 2월 10일 네이트 판에 여자 배구계의 스타선수 이재영·다나영 자매의 학교폭력 폭로 글이 올라왔다. 이후 남자부 선수 송명근·신경섭 선수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고, 박상하 선수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쓴 글에 사죄하며 은퇴를 했다.

학생선수 간 학교폭력은 일반학생 간 학교폭력보다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 상황에 따르면 15.7%가 언어폭력을, 14.7%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 같은 해 학생선수 아닌 일반 학생의 학교폭력은 초등학교 1.8%, 중학교 0.3%, 고등학교 0.2%로 나타났다. 심각한 상황에도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

## 예방하지 못하는 예방교육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인권위나 교육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내부 인력이 강의를 하다보면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유명무실한 예방교육을 벗어나 더 체계적이고 받아들이기 쉬운 예방방안이 필요하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2월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방안’을 마련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찾아가는 예방교육 강화로 학생선수가 대상인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및 표본 조사를 하고,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한다. 실제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전수조사가 정례화 된 후 학교폭력이

크게 줄었다. 전수조사 그 자체로 예방 및 점검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선수는 소수의 동료선수, 지도자, 학부모에게 대부분의 생활을 의존하기 때문에 교육 대상의 다각화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을 준다.

세계적인 공격수 김연경의 국내무대 복귀로 배구계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인기를 구가하는 배구계와는 반대로 배구선수의 성장과정 뒤에는 학생선수 폭력이 존재한다. 이제는 예방교육을 통해 선수가 옳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힘써야 한다. 코치와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계는 암울한 이면을 떨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현규 기자

## 의화정

### 새로운 식사 문화와 사이버 보안

우리의 밥상은 크게 반찬과 국 그리고 밥으로 구성된다. 국은 큰 솥에 끓여내고 상에 둘러앉은 모두가 숟가락으로 먹는다. 반찬의 경우 반찬통을 그대로 꺼내서 먹고 다시 달아서 보관한다. 접시에 떨어놓은 것은 손대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다시 반찬통에 넣는 경우가 많다.

위의 식사 모습은 위생적인 관점으로 보나 사이버 보안 관점으로 보나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숟가락은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이지만 분명 침이 묻어 있다. 반찬에는 침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 최근에는 국을 개인적으로 따로 마련하거나, 반찬을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먹고 남은 반찬은 과감히 처분하는 문화가 새로운 식사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비싼 밥상의 모습은 사이버 보안 원리와 유사하다.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이버 보안 원칙을 보면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해킹된다면 금전적 손실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완벽한 보안이 요구된다.

보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망분리이다. 외부 인터넷에서 원자력 발전소 인트라넷으로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해킹은 일반적으로 해커가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한다.

서화정(IT융합공학부) 교수

원자력 발전소와 외부 인터넷의 네트워크망이 서로 연결되었다면, 해커가 어려움 없이 해킹을 할 수 있다. 반면에 네트워크망이 서로 분리된다면 해커가 원자력 발전소에 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후에도 해킹이 성공하려면 원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해야 하는데, 망분리가 된 경우라면 외부에서 추가적인 입력이 불가능하다.

망분리를 뚫고 해킹을 시도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이란의 발전소에 침입한 스틱스넷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발전소 내부자에 의해 바이러스가 담긴 USB가 발전소에 연결됐고, 해당 USB의 바이러스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분석 및 판단해 발전소를 마비시켰다. 망분리를 통해 발생한 물리적 거리를 발전소 내부자와의 내용으로 메꾼 것이다.

이 사건 이후에는 발전소에 대한 성공적인 해킹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가정 내 구성원에 의해 음식에 대한 악의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음식에 대한 망분리를 통해 충분히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 서로 완전히 연결된 것보다 적절한 차단이 이뤄질 수 있는 모습이 더 안전한 공동체와 보안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낙산에 올라

작년은 필자에게 대학 생활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시기로 기대가 많았던 한 해였다. 모두에게 그렇듯 지난 1년은 계획한 일이 무산되는 여러 변수와,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던 상황 속에서 느끼는 무기력함을 지닌 날의 연속이었다.

현대인은 ‘정체성’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싶다. 한 사람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는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에서, 코로나로 인해 한정된 공간 혹은 상황에 놓인 사람은 ‘진짜’ (진짜 자아 정체성)를 찾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수많은 심리테스트(나에게 어울리는 전공 찾기, 꽃 유형 등)가 SNS에 공유됐고, MZ세대들에게 MBTI(성격유형검사)는 자신을 소개하는 도구로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다르다고 결론짓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됐다.

## 기자사령

- 임수습기자 권노은(인문 1) 김기현(인문 1) 김민찬(인문 2) 김지윤(사회과학) 박지연(뷰티 1) 박한석(CT 2) 한혜정(사회과학 1)

퇴부장기자 이슬비(인문 2)

## 내 안의 나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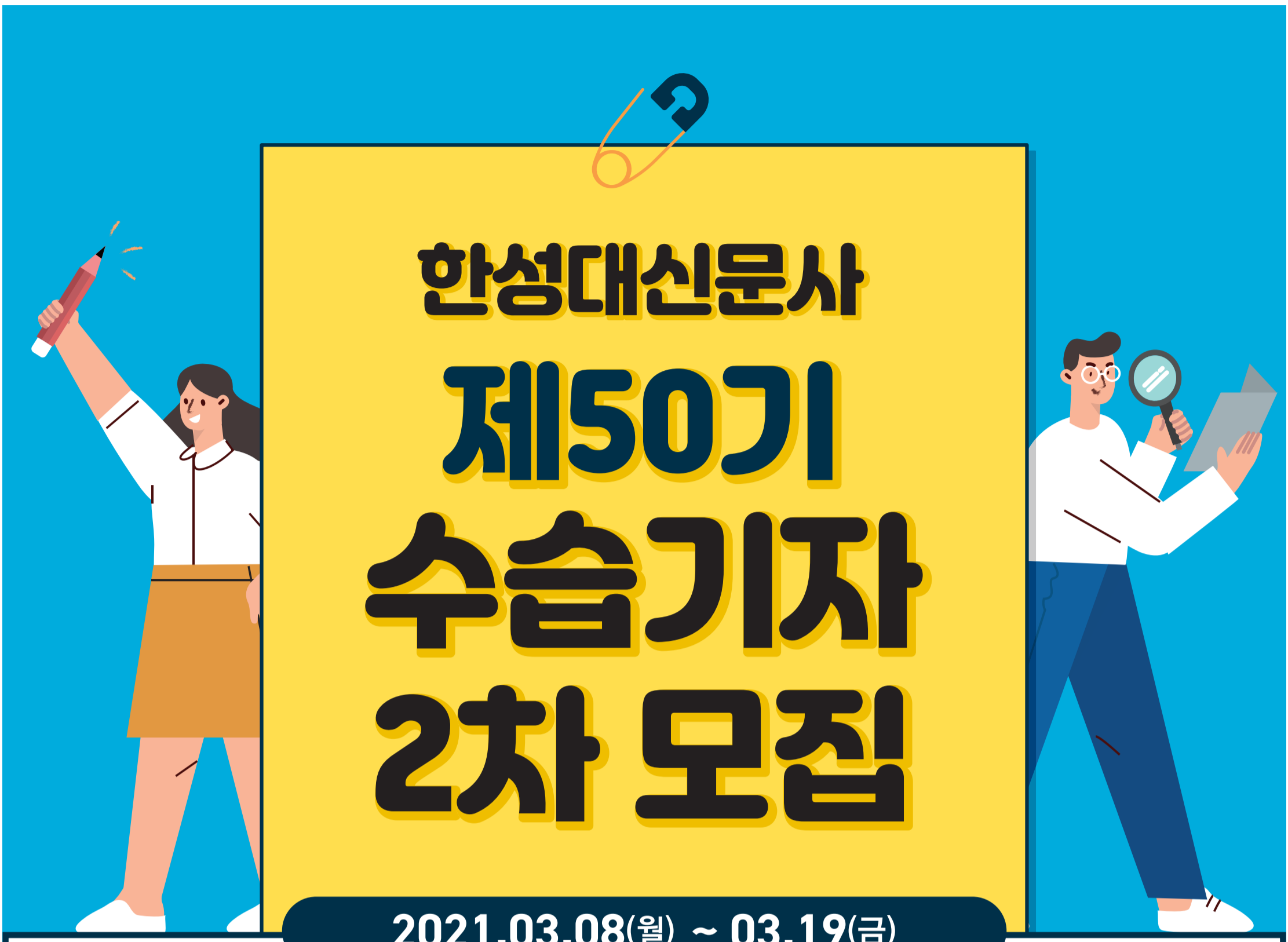
〈트렌드 코리아 2021〉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성향을 ‘레이블링 게임’(Real Me: Searching for My Own Label)으로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특정화된 유형 딱지(label)를 붙인 뒤, 해당 유형의 라이프스타일을 동조 혹은 추종함으로써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게임화된 노력”을 하고 있다. 레이블링 게임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뿐 아니라 소비 형태도 결정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여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식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브랜드 또한 소비 흐름을 파악해 레이블링 게임을 녹여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NS 속 레이블링 게임을 재밌게 이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특정화된 유형

(label)에 자신을 과도하게 대입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같은 유형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무시한 채 우리의 삶이 너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의 단점이나 실수를 “난 이런 유형의 사람이니 행동의 결과가 유형대로 나오는 것”이라고 정당화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상 생활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테스트 결과로 나온 유형의 라이프스타일을 맹목적으로 이루어는 태도는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회는 답을 찾아나가고 있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2021에는 덜 불안한 사회 속에서 ‘내 안의 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정현(인문 4)



2021.03.08(월) ~ 03.19(금)

**모집대상**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본교 재학생

**주요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및 사진 촬영
- 레이아웃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평가회의

**지원방법**

• 한성대신문사 웹사이트([www.hansungnews.com](http://www.hansungnews.com)) 또는 교내 홈페이지 '비교과공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hansungnews@gmail.com](mailto: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활동기간**

- 입사 후 4학기 동안

**활동혜택**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박희연 편집국장 010-3412-1839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페이스북 메시지 @hansungpresscenter